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광주 가맹점 8967개 전년비 7.1%·매출 8.9% ↑ ...전남도 모두 증가 경기침체에 프랜차이즈 수요 높아 ...전국 가맹점 사상 첫 30만개 돌파

지자체가 광주·전남 지역의 소비심리 지표 등은 하락하고,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8967개로 전년(8370개) 대비 597개(7.1%)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수 역시 2만7198명에서 2만9899명으로 2701명(9.9%) 늘었다.

가맹점 수가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 매출액 역시 3조470억원으로 전년(2조 7960억원)보다 2510억원(8.9%) 늘었고, 인구 1만명 당 가맹점 수는 61.3개로 전년(57개)에 견줘 4.3개(7.5%) 증가했다.

전남은 가맹점 수가 지난해 기준 9727개로 전년

(9068개) 대비 659개(7.3%)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2만6695명에서 2만8789명으로 7.8% 늘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의 매출액은 3조2450억원으로 1년 전(2조9240억원)보다 10.9% 늘었고, 인구 1만명 당 가맹점 수 역시 51.2개에서 55.0개로 7.4% 증가했다. 다만, 전남의 경우 인구 1만명 당 가맹점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배달앱' 시장의 확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개인 치킨집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외출을 꺼리면서 대폭 확대된 배달앱 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배달앱 수요에 특화된 할인 행사 또는 광고 등으로 일정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개인 점포가 같은 업종 경쟁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음식서비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9조690억원(2019년)→16조4370억원(2020년)→25조4770억원(2021년)→26조690억원(2022년)→25조9610억원(2023년) 등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 소폭 뒷걸음질 치기 전까지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가맹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0만개 고지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0만1327개로 1년 전(28만6314개)보다 5.2% 증가했다. 가맹점 수가 30만개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처음이다.

종류별로 보면 편의점이 5만4823개(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식(5만128개·16.6%), 커피·비알콜 음료(3만2238개·10.7%) 등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16개 업종 가운데, 생맥주·기타주점(7.0%), 한식(6.3%) 등 11개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GM, 특성화고·대학교에 실습용 차량 기증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광주지역 대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교육 실습용 차량 2대를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GGM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들 학교의 교육 실습용 차량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4일 조선이공대학교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캐스퍼 1대씩을 전달했다.

조선이공대와 광주전자공고는 그동안 GGM과 손잡고 산학인턴을 운영중이며, 자동차 전문가 육성을 위해 힘써왔으나 생생한 체험을 위한 실습용 자동차가 여유롭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선이공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GGM 김민중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 차장단, 자동차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 광주전자공고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GGM 김석봉 생산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광주전자공고 위환복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학교에 전달된 캐스퍼는 자동차 공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용 교보재로 활용되고, 각종 자동차 관련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습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민중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지원본부장은 "산학협력이야말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GGM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공헌활동이다"며 "GGM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저렴한 전세대출 집중...상환능력 중심 대출 기준 강화해야”

국토연구원 분석...전세자금대출 보증공급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세와 매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고, 취지에 어울리는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토정보원은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세자금대출 보증 잔액은 1.7배(2018년 50.2조원→2023년 86.3조원), 전세자금대출(89.4조원→181.2조원)은 2배 증가했다. 국토정보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공급과 전세수급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공급이 1% 증가하면 월간 전세

가격은 0.1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자금대출 공급이 1% 증가하면 월간 매매가격은 0.365%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증가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임대인이 갑주자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수월해지면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 매매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정보원은 이 같은 이유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의 보증금 기준을 강화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보증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적 보증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지만, 집값 상승과 같은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대출 한

도 규제와 상환능력 중심의 보증 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정보원은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한도 규제 등 부분 보증을 대안책으로 언급했다. 국토정보원은 또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현재 월세 거주 가구가 동일한 주택 전세로 거주할 때 월 평균 9.2만원의 주거비 감소 효과를 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이자와 보증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고속, 김해공항행 신규 노선 운행

1월 2일부터 하루 3회

금호고속이 내년부터 광주와 순천, 광양에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신규 노선을 운행하기로 했다. 국제 항공편이 적은 무안국제공항 대신 인천국제공항보다 비교적 가까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지역민이 늘어나고 있어서인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기노선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금호고속은 25일 "2025년 1월 2일부터 '광주·순천·동광양·김해공항' 노선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출발하는 김해공항행 노선은 하루 3회 운행되며, 출발 시간은 새벽 2시45분과 04시30분, 오후 3시30분이다. 순천발 버스는 하루 1회(새벽3시55분), 동광양(중마)도 하루 1회(새벽 4시30분) 운영된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광주행 버스는 하루 2회로 출발시간은 오전 8시와 오후 9시며 순천과 동광양을 경유한다.

광주에서 출발한 김해공항행 버스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순천발은 약 2시간 20분, 동광양(중마)발은 약 1시간 45분이 걸린다.

버스 티켓 예매는 '티머니GO' 앱으로 가능하며, 광주·순천·동광양(중마)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는 코버스 홈페이지 또는 '고속버스타미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김해공항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외여행 갈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지방 소멸위기 대응 나선다

국토부, 통합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25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도 지역 활력 타운 및 민간 상생 투자 협약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지역 활력 타운은 국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함께 지역에 주거, 기반 시설, 생활 서비스가 갖춰진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은퇴자나 귀농·귀촌 청년 등의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공모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연계 지원 사업 가운데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 지원과 인허가 특례 적용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주어진다. 민간 상생 투자 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며 공적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와 양해 각

서(MOU)를 체결하고, 중앙 정부는 이 지자체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어 국비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중 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지역 활력 타운 10건, 민간 상생 투자 협약 5건을 선정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남권메타버스허브센터 개소



기술 발전·인재 양성 등 지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3일 서남권(전남·전주·광주)의 지역 특화산업과 메타버스 기술을 융합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서남권 메타버스허브센터(이하 허브센터)'를 나주에 개소했다.

〈사진〉 허브센터는 진흥원 1층과 3층에 자리하며, 실증 테스트베드실, 교육실, 메타버스체험존 등을 갖춰 서남권의 메타버스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인용 진흥원장은 "5G MEC 활용성이 높은 콘텐츠 분야를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남권 지역에 소재한 실감콘텐츠 기업들이 고품질의 메타버스 솔루션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특히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병행해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권 메타버스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이 사업을 주관하고, 전남도, 나주시, 광주시, 전주시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 운영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앞으로 센터는 5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5G MEC(Mobile Edge Computing) 콘텐츠와 XR디바이스 실증 테스트베드 및 자문 제공,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개발자·창업자 인재 양성, 메타버스 허브센터 운영 및 지역 협업체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신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

인권경영시스템도 2년 연속 획득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최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과 더불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조직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 분석, 통제, 모니터링 및 개선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규격이다.

전남신보는 2020년 최초 인증 후 윤리경영 전담 조직 신설, 청렴감사관 제도 도입, 비윤리·반부패 신고 시스템 운영 일환화,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부패 ZERO'를 목표로 청렴경영을 실천한 바 있다. 그 결과 12월 부적합 사항 없이 갱신 심사를 통과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에 성공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인권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인권경영을 실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남신보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에서 기관 운영 점수 97.2점, 재기 지원 분야에 대한 주요사업 점수 92.1점을 얻어 인권존중의 가치가 경영 전반에 내재화되어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 실천과 부패 예방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패방지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바탕으로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문화를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판매

전기공급사업자 등록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직접 PPA란 기존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공급하던 전력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K-RE100 이행수단 중 하나다. 전기사용자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가 출자·출연한 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연

구와 다양한 보급사업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등록을 통해 연구원은 전남 RE100 활성화와 동시에 지역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여수에서 공공기관 및 건물을 활용한 직접 PPA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지역 주민 투자를 유도하여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항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주민 투자로 구축하고, 발전 전력은 지역 RE100 기업에게 공급하며,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선순환 모델을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